

지역 소식통

유기상 고창군수  
해리면서 이동균청

유기상 고창군수가 25일 고창군 해리면을 찾아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고창 민원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기상 군수는 오전 해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들 만나 가로등 보수, 농로포장 등 군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와 주민 생활 속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한 의견을 들었다. 또 영농현장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을 위로하는 시간도 가졌다.

고창군은 이번 이동균청에 접수된 각종 고충들과 건의사항들을 해당부서에 즉시 통보해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해당 주민에게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안내할 방침이다. 이밖에 유 군수는 해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봉사활동 현장도 찾아 일손을 돕고,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해리면 지사원은 목거노인 가정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창문 외풍 차단과 이불 지원 등 봉사활동을 펼쳐 나눔과 사랑의 의미를 더하고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하서면, 사례관리대상자  
주거환경개선 등 서비스

하서면은 사례관리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의료비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 연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상자들은 노후된 보일러 교체 및 난방유 지원, 장마로 인해 곰팡이가 생긴 벽에 도배를 새로 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지원을 받은 한 어르신은 "노후 되어 고장이 난 보일러 때문에 올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는지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걱정을 한사를 덜었다"며 두 손 꼭 잡으며 감사함을 전했다.

기세를 하서면장은 "복지대상자 분들을 도와 따뜻한 겨울을 지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발굴하여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 '청년창업 챌린지숍' 준공

### 원도심 도시재생으로 '빛과 청년창업의 공간' 재탄생 정읍시, 안정적인 정착·맞춤형 성장 프로그램 지원

정읍시는 지난 24일 원도심 도시재생과 청년창업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청년창업 챌린지숍'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년창업 챌린지숍은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열정으로 원도심의 낙후된 상권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진섭 시장과 이상길 시의회 부의장, 정상섭 시의원, 도시재생 관련 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해 원도심 재생과 청년 창업의 성공적 운영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첫발을 내딛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시민 창안 300거리 프로젝트 사업 중 청년들의 창업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기동 258-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2억원을 투입해 창업사무실 8개소와 미팅룸, 세미나실, 입주자 공동시설, 휴게공간 등을 조성했다.

특히, 이 지역은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이었으나 업소들의 휴·폐업과 장기기간에 걸친 불황 등으로 공실률이 80% 이상이었다.

시는 지역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고 고심해 '빛과 청년창업의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 창업자에 사무공간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회의실과 공동장비 등을 무상 제공하고, 창업에 필요한 절차 등 기본교육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컨설팅, 공동 마케팅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창업 아이템별 멘토진을 구성하고 맞춤형 성장 촉진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자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청년창업 챌린지숍은 우리 지역의 청년이 마음껏 꿈꾸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 주는 도전과 성장의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창업 챌린지숍은 향후 입주기업 모집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을 하게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는 지난 24일 원도심 도시재생과 청년창업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청년창업 챌린지숍' 준공식을 개최했다.



부안 동진면은 구지마을 입구와 안성리 도로변에 쌓여 있는 도로변 40여톤의 방치된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 등 25명과 함께 도로변 화단조성 가꾸기 활동을 하였다.

### 부안 동진면, 도로변 쓰레기 투기지역화단 조성

부안 동진면은 구지마을 입구와 안성리 도로변에 쌓여 있는 도로변 40여톤의 방치된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고, 지난 24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 등 25명과 함께 도로변 화단 조성 가꾸기 활동을 하였다.

화단가꾸기 활동은 도로변 집단쓰레기 수거지역을 정리하고 도로변 노면 정리와 애머럴드 그린 및 남천 국화꽃, 양귀비 꽃씨, 접시꽃씨 등을 식재하여 깨끗한 동진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활동의 목적은 마을 및 주요도

로변의 불법 쓰레기 투기지역의 방치된 쓰레기 수거로 쾌적한 동진만들기와 외래 방문객에 동진의 깨끗한 이미지를 심고 불법 쓰레기 투기를 원천봉쇄하기 위함이다.

한편 김명신 동진면장은 "그 동안 부안 초입의 깨끗한 동진면을 만들기 위해 집단방치쓰레기 수거를 하여왔다. 부안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부안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단체들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동학농민혁명 역사적 의미 재조명

#### 정읍시, 국제학술대회 '성료'

정읍시가 주최하고 (주)서울신문사가 주관하는 동학농민혁명 국제학술대회가 25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유진섭 시장과 고광현 서울신문사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형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0명

이하로 참석자가 제한됐으며, 참여하지 못한 시민을 위해 유튜브 '서울신문사 계정과 '정읍 세'에서 온라인 생중계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가기념일 제정 1주년을 맞아 '19세기 말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문화로 본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열렸다.

학술대회에서는 한국근대사의 전환점이자 동아시아 삼국의 역사적 진로를 결정지었던 동학농민혁명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당시의 국제질서

에 대해 재조명했다. 또,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야 하는 가치와 당위성을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익주 전북대 교수의 '동학농민혁명과 문화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7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고, 신순철 원광대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당 시대 조선과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관한 역사적 인식, 청일전쟁기 청과 일본의 대조선 외교정책 방향, 동학과 이후 탄생한 민족종교와의 관계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내장산 자연휴양림' 실시설계 용역 보고

정읍시는 지난 8월 지정 고사된 내장산 자연휴양림의 내실 있는 조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4일 내장산 자연휴양림 용역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관련 업체와 공무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부터 계획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던 내장산 자연휴양림 조성 실시설계안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 유 시장은 내장산과 용산호를 조망할 수 있는 시설물 배치와 단체 관광객 수용 가능한 시설 규모 산정, 야간 야생동물 피해 방지 시설 도입 등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 기업하기 좋은 도시 '고창'

#### 2년 연속 투자유치 우수기관 선정... 탄탄한 기반인프라 등

고창군이 전북도의 투자유치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는 일반산업단지 등 탄탄한 기반인프라는 물론, 고창군과 기업체의 협업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고창을 재확인시켰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전북도의 시·군 투자유치 평가(투자유치 실적,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지방비보조금 지원 우수사례 및 사업노력 등 4개 부문)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고창군은 MOU체결 건수, 투자유치활동 건수 등 투자실적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투자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으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앞서 고창군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경제침체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1개 기업과 입주계약, 4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해 투자금액 2480억원, 고용인원 1382명을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줬다.

고창군은 산, 들, 바다, 강, 갯벌이 모두 있어 신선한 원재료 조달이 쉽다.

또 수박, 복분자, 멜론, 고구마, 땅콩 등 타시·군에선 쉽게 시도할 수 없는 특작작물이 재배되면서 '특별한 맛'을 선보이려는 식품기업들의 안정적인 테스트베드가 되어주고 있다.

여기에 군 단위로는 드물게 고속도로 IC가 3곳(선운산, 고창, 남고창)이 나 있어 유통이 편리하고, 대도시 소비처(광주, 전주 등)도 근처에 있어 식품산업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투자유치 우수기관 선정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고창을 보여주는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주여건 개선 등 각별한 관심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